

Sermon Notes:

서론: 궤변에 대한 바울의 질문: 누구의/무엇의 종인가?

유일한 해결책: 예수 그리스도 (요 8:32)

본론:

1.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
가. 순종이 무엇의 종인가를 결정함: 죄 혹은 하나님
나. 선택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
영생 vs 사망
2.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
가.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 (15 절)
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
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 -> 모든 것이 자발적
삶에 갈등/시험 있다 -> 순종하면 해결됨 (예: 예수님)
삶에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함: 처음 사랑, 가난한 심령
나. 기록 때문 (19 절)
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함
죄와 세상과의 구별이 있어야 함: 교회와 성도의 본질
암 투병 중이었던 프란시스 웨퍼 박사의 도전
링컨 대통령의 평소 소원
거룩함의 열매가 바로 영생 (22 절)
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

결론: 부족하지만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.

암송구절: 로마서 6 장 22 절

‘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’

Memo/Reflection:

1.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? 자신은?
2.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?
3.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?